'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에 적극 나서

김 석 환 | 홍성군수

1945년 충남 홍성 출생
1964년 홍성고등학교 졸업
1997년 홍성군 기획감사실장
2003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10년 민선 5기 홍성군수
2014년 민선 6기 홍성군수

▲ 당선된 소감?

홍성군정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지난 4년간 군정을 이끈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홍성을 충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민선 6기에도 7백여 공직자와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홍주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 현재 홍성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홍성군은 도 차원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는 내포신도시와 차별화 전략으로 홍성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특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홍주성복원사업을 통해 홍주성역사관 건립, 홍주성공원조성, 남문·옥사 복원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다.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내 거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앞

당겨 개설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평생학습지원센터 건립, 종합복지센터 건립, 한옥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겠다.

천주교 성지를 개발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 옥암지구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온천을 개발하고 호텔과 한옥촌을 건설하여 묵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오관지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360세대와 보건소 · 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우선 시행하고 주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주거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장현대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 문화예술창작인들을 위한 활동 공간 지원 등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홍성고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대응하여 유명사립고 또는 방송통신대를 유치해 교육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낡고 노후한 군청사는 도심공동화를 자초하게 될 이전 · 신축 보다는,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홍주성 내에 홍주성과 어울리는 청사를 건축하여 역사성을 이어가며 공동화를 방지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민선 6기 홍성군정은 10만 군민들이 홍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도권 전철 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서해복선전철 조기 추진, 홍성역 ~ 내포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충청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 등을 강력 추진하여 신도시와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통한 홍주시 승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여성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홍성 만들기 등 다각적인 복지시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용봉산, 오서산, 남당항, 홍양저수지 등 주요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푸른 도시공간 조성, 불법주정차 방지 등을 통한 명랑한 거리조성, 생태하천 조성, 신도시 주변 축사시설 제한 등으로 자연이 살아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다.

중물량 생산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홍성 서부지역을 산업기지화 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오토캠핑장 · 바다낚시터 조성 등의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어촌 생산품의 6차산업화 추진, 농기계임대분소 설치, 읍 · 면별 특화품목 개발을 추진하고 홍성 특색음식을 활용한 사계절 푸드투어,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친환경농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민선 5기부터 추진해 온 문화예술 증진 사업과 홍주읍성 복원 등을 계속 추진하고 2018년 홍주지명 천년을 앞두고 (가칭)"희망의 땅 홍주 천년대축전"을 개최하는 한편, 홍성 위인의 선양사업 추진 등을

통해 홍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교육 예산을 점차적으로 3%까지 증액시키고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 확충, 학교급식센터 활성화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이를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일하는 조직분위기로 일신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청렴 행정구현,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직혁신과 역량 강화로 군행정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충남도와 홍성군의 동반성장 추진을 꼽을 수 있다. 70년대는 국도1호선을 따라, 80년대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발전해 왔다면, 21세기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환황해권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홍성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홍성역~내포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신도시 진입로 확장,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 등을 추진해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유가농, 채소류 등의 근교농업단지 조성과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옥암지구 개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원도심공동화에 대비해 홍성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할 것이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충남도청의 홍성 이전 등 변화된 여건에 발맞춰, 지난해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2025년 홍성군의 비전으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중인 내포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행정의 중심인 내포신도시와, 역사문화도시로 특화된 홍성원도심, 용봉산-오서산-남당항 등으로 이어진 관광벨트,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축산업이 뿌리내리는 등 조화롭게 발전한 충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홍주시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홍성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를 맡아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안정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홍성을 충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건설하라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희망 홍성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소통행정으로 진정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펼쳐 가겠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홍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